



제15장 레지오의 선서문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 저 (성명과 세례명) 는 (은)

오늘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 주소서.

제가 하는 보잘 것 없는 일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받쳐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으며
성모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에,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알아뵙고 사랑하며
삼위일체 하느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일치하시고
오직 하느님만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메아리이기에,
당신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재능과 덕행과 은총을
저희에게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여 성모 마리아의 겸손과 모범을 따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믿나이다.

(선서하는 단원은 백실리움 깃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성모님의 병사요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서서,
성모 마리아께 온전히 의탁함을 선언하나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제 영혼의 어머니시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며,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다시 겸손되어 아뢰오니,
당신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큰일을 하시고자 다시 오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 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 주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흠 없으신 성모님 안에서 저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제 안에서도 자라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이 세상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어,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 성모 마리아와 함께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소서.

오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를 써 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다짐하나이다.
저는 감히 레지오의 대열에 함께하여 충실한 봉사를 약속하나이다.
저는 레지오의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인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저희의 대열을 가다듬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진군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 은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얼굴은 새롭게 되고
온 누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